동북아역사재단 세션

토론 (최운도)

지금까지 4 명의 발표자들은 3.1 운동과 민족자결주의가 한국 뿐 아니라 중국, 일본, 그리고 파리강화회의에서 어떻게 받아 들여졌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시의 국제질서를 생각해 보면 조선의 식민지 경험을 일본과의 양국 관계 속에서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식민지 질서와 비교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생각이 나는 것이 영국의 식민지였던 아일랜드의 경험입니다. 박명규 교수님께서는 일본의 식민지배와 서구의 식민지배와의 차이점들 중 하나가 동일문화권과 동일 인종 내에서의 식민지배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비추어 본다면 영국-아일랜드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동일문화권 내에서, 그리고 동일 인종 사이에서 있었던 관계라는 점에서 한일관계와 유사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아일랜드 지배가 일본의 조선지배와는 큰 차이가 있을 정도로 억압적이지도, 폭력적이지도 않았다는 점입니다. Queen's University 의 McGarry 교수는 그 차이의 원인으로 몇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첫째는 영국의 국가와 사회의 자유, 민주주의적 성격입니다. 국가의 행위는 영국의 언론과 정계, 시민사회로부터 크게 비판받아 왔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다양한 식민지를 경영하던 영국민들의 인종적 편견입니다. 아일랜드인은 백인일 뿐 아니라 수세기에 걸친 이주를 통해 영국민의 피가 아일랜드인들에게 흐르고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일랜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을 희구했습니다.

그러한 면에 비추어 본다면 대정 민주주의에 대한 아사노 선생의 평가가 더욱 잘 이해가 됩니다. 몇 몇 조선에 대한 통치방식의 근본적 수정을 요구한 주장들은 있었으나 조선의회의 설치 구상에 대한 일본의 대응에서 보듯이 일본 자체의 민주화의 한계, 일본의 감정질서가 국제적 민주주의의 공존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지적은 참으로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민족자결주의에 대한 정치가와 지식인들의 입장에 대해서도 '거기까지가 당시 일본 민주주의의 한계였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은 서구 열강들과 일본의 침략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청왕조의 청산과 국내 질서의 회복, 거기다 국민당과 공산당의 대결 등 수 많은 국내문제를 극복해야 했습니다. 그 결과가 AU 선생이 말하는 민족주의적 반외세 정책에서 문화운동으로의 전환이라 할 것입니다.

박명규 교수님께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서구의 지배에 대해 인종주의적 편견에 기초한 것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심지어 아일랜드의 드 발레라 대통령은 미국에서 아일랜드의

독립을 호소하면서 아일랜드는 자유를 박탈당한 마지만 백인 국가라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일본의 조선 지배의 특징으로 비슷한 문명의 수준과 동일 문화권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지적은 혹시 다른 지역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라는 비판의 우려는 없는지요?

아사노 교수님, 당시 일본의 그러한 정치인들은 바로 이웃하고 있는 조선과 중국에 대한 침략과 지배, 제국주의 질서가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 믿었는지, 아니면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그 뒤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걱정은 없었는지요? 종전 후 세계질서 속에서 일본이 조선에 대한 식민지배의 경험으로부터 얻은 교훈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AU 교수님, 홍콩에서 중국인들이 5.4 운동에 반대하고 영국의 식민지배를 수용했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이랜드의 경우와 같이 영국의 민주주의적 통치 때문일까요?홍콩 시민들은 2 차 대전 이후 식민지들이 독립해 갈 때,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요?